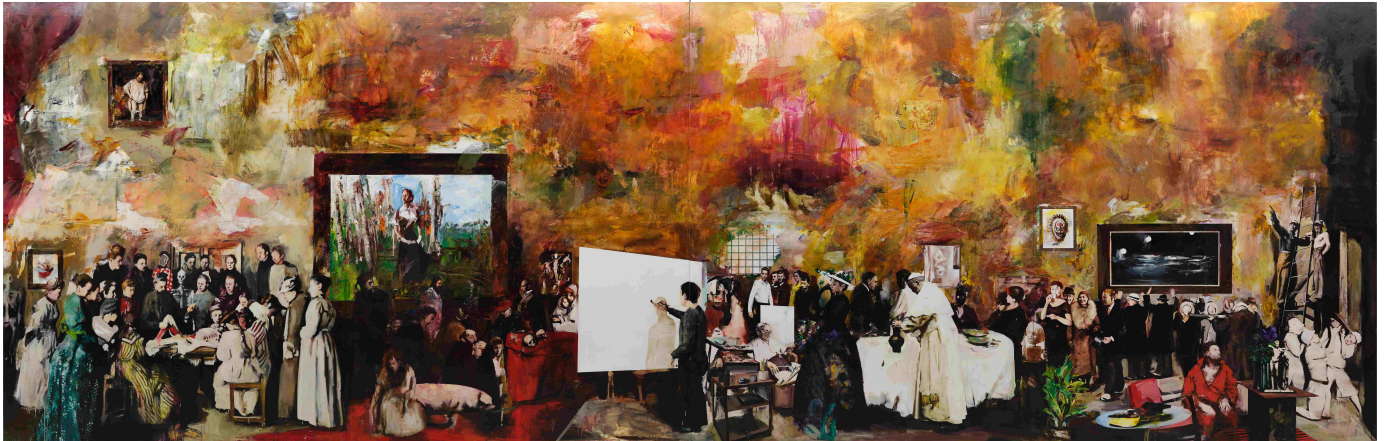


Ida Yukima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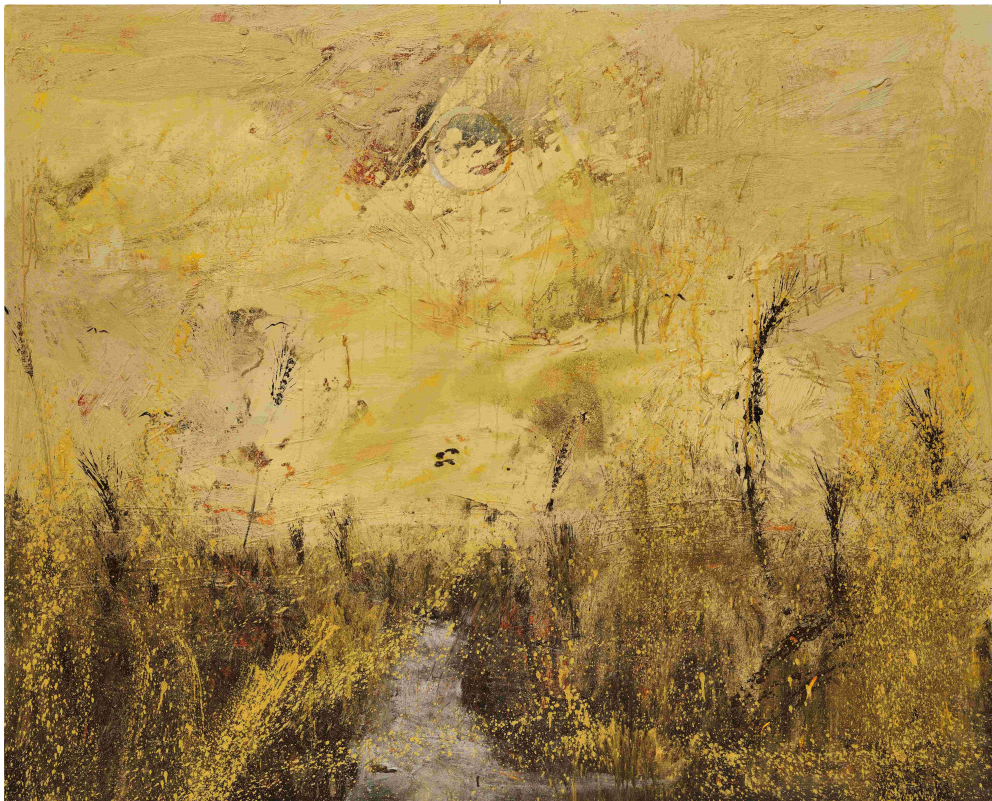
해외 ARTIST 이다 유키마사

1990년생 일본

2026 / 08 / 22



<Miniature Garden-Creative Allegory> 패널에 유채 350×1092cm 2020



<Wheatfield at Auvers-sur-Oise> 캔버스에 유채 130.3×162.5cm 2026

이다 유키마사(1990년생, 일본)는 일본 전통 사유인 이치고
이치에(), 즉 '일생에 단 한 번뿐인 만남'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반복 불가능한 시간성과 존재의 순간을 회화적으로 탐구한다.
작가는 두터운 유채의 물질성과 격렬한 붓질, 강렬한 색채를 통해
기억과 감각, 신체적 경험이 응축된 찰나를 화면 위에 고정하여
사실과 추상의 경계를 넘나든다. 특정 대상을 재현하기보다는,
순간에 발생하는 에너지와 감정의 밀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데 집중하며, 동시대회화가 지닐 수 있는 물질적·철학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유키마사 이다는 2016년 CAF-
아트어워드에서 나와 코헤이가 직접 선정하는 특별상을 수상하며
제도권 미술계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포브스』의 「Japan 30 Under 30」에 선정되었으며, 현재는
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에서 개인전과 주요 그룹전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이 기사는 2026년 8월호 특집 「키아프 & 프리즈 하이라이트」
우손갤러리(Frieze C06, K1af B43)에 게재되었습니다.